

# 이재명, 오는 10일 오전 11시 檢 출석... 변호인만 대동 방침

### “검찰, 주중 출석 강경 고집...유감” “의원들 안 오면 좋겠다 게 추 입장” “서면 진술 답변 등 방어 행사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등 의혹 관련 2월10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변호인만 대동해 출석하겠다는 방침으로, 의원 동행은 자제해 달란 당부도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7일 안호영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추가 조사 관련 10일 최고위원회 후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주중엔 당무, 국정에 집중해야 해 주말 출석하려 한단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 대표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민생을 나 몰라라 하며 야당에 그 역할을 떠맡기면서 검찰을 앞세워 그마저 방해하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주중에 출석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이 대표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출석하는 상황”이라며 “금요일엔 최고위가 있어 끝나고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가 주중 조사를 수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대표가 직접 말할 부분”이라면서 “여러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그는 “검찰에서 주중 출석을 요청한 부분도 있고, 검찰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나와 조사하는 것에 따르는 여러 어려움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주중 출석을 수용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기회가 되면 직접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월10일 검찰에 “변호인하고만 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는 게

안 수석대변인 설명이다.

앞서 이 대표는 1월28일 출석 전에도 ‘변호인만 대동’ 방침을 언급했는데, 당일엔 다수 의원들과 지지자 등 인파가 응원하는 모습이 연출된 바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지난번에도 대표는 변호인과 가겠다고 얘기했고, 실제 당 의원도 현장엔 실무 지원 차원에서 대변인과 비서실장만 갔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을 때 여러 명이 위로 차 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대표는 여러 의원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의총에서도 다시 강력하게 말해서 아마 다른 의원들은 안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검찰 대면 조사 과정에서 서면 진술서를 제시하고 답변은 비교적 아끼는 대응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28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서면 답변을 시도했는데 “장시간 조사가 불필요한 데 검찰은 조사를 지연하고 추가 조사까지 요구했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표 검찰 출석 후 수사 관련 대응 일정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대변인은 “아직 주말엔 다른 일정은 없는데 여러 상황에 따라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추가 규탄대회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조기 걸린 주한 튀르키예(터키) 대사관. 튀르키예 강진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7일 서울 중구 주한튀르키예대사관에 조기가 게양돼 있다.

## ‘교복 투찰가 200원 차이 담합 의혹’...공정위, 광주·전남 업체 조사

### 200원~1만원 이하 차이 가격 제시한 뒤 낙찰 받아

광주와 전남지역 교복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 광주사무소는 지역 교복업체들이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해 담합을 하고 있다고 신고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역 교복업체들의 학교 입찰 과정을 살펴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자를 상대로 담합 행위 과정 등을 파악한 뒤 의심되는 교복업체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담합이 의심되는 광주와 전남지역 학교를 파악한 뒤 입찰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와 전남지역 교복판매업체는 일부 업체들이 ‘교복 최저가 2단계 경쟁 입찰방식’을 악

용해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200원~1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담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지역 교육단체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담합이 의심되며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교육청도 자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 뉴시스가 나라장터에 게시된 광주와 전남지역 중·고교 교복 개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광주 82개교 중 43개교의 경쟁투찰가 차이는 300원~1만원 이하, 39개교는 1만1000원~8만6000원이었다.

전남은 78개 학교 중 투찰 가격 차이 ‘200원~1만원 이하’ 학교가 총 71개교, 나머지 7개교의 업체 간 경쟁 금액 차이는 1만2000원~4만9000원으로 분석됐다.

담합이 의심되는 학교의 교복가격은 30만원

~40만원, 경쟁경쟁 추정 학교는 10만원~20만원으로 나타났다.

교복납품업체 선정은 가격이 비싸다는 학부모 항의가 잇따르자 개인 구매에서 학교 공동 구매로 변경돼 지난 2014년부터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학교가 교복구매 가격(기초금액 상한가 30~35만원)을 고시하면 최소 2개의 교복업체가 기초금액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제시한 뒤 학교 관계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다.

공정위광주사무소 관계자는 “교복업체들이 각 학교가 교복 입찰을 게시하기 전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조율해 A업체가 선정되면 다른 학교는 B업체가 뽑힐 수 있도록 담합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 손님인 척 금팔찌 차고 달아난 30대 긴급체포

금은방 손님인 척 행세하고 귀금속을 찬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안경찰서는 7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29분께 광산구 월계동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금팔찌 등

8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을 가장하고 금은방에 들어가 금팔찌 등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착용한 뒤 점주가 한눈을 판 사이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분실 신고돼 사용이 정지된 카드를 점주에게 건네고 점주가 등을 보인 틈을 타 도

망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도주 1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시께 광산구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형택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